



#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할 수 있어

☞ 29면에서 계속

로 나지를 않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썩습니다.

▲스님: 인체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한마음으로서 작용을 해주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다. 머리가 빠졌던 것도 나게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할 수 있어요.

▲질문자2: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미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 여기에 그렇게 많이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던 그런 영령(英靈)들이 스님과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었는지요. 한 말씀 일러주시지요.

▲스님: 인연이 별다른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 허허허.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와 꿈과 틀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활나활나 만남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서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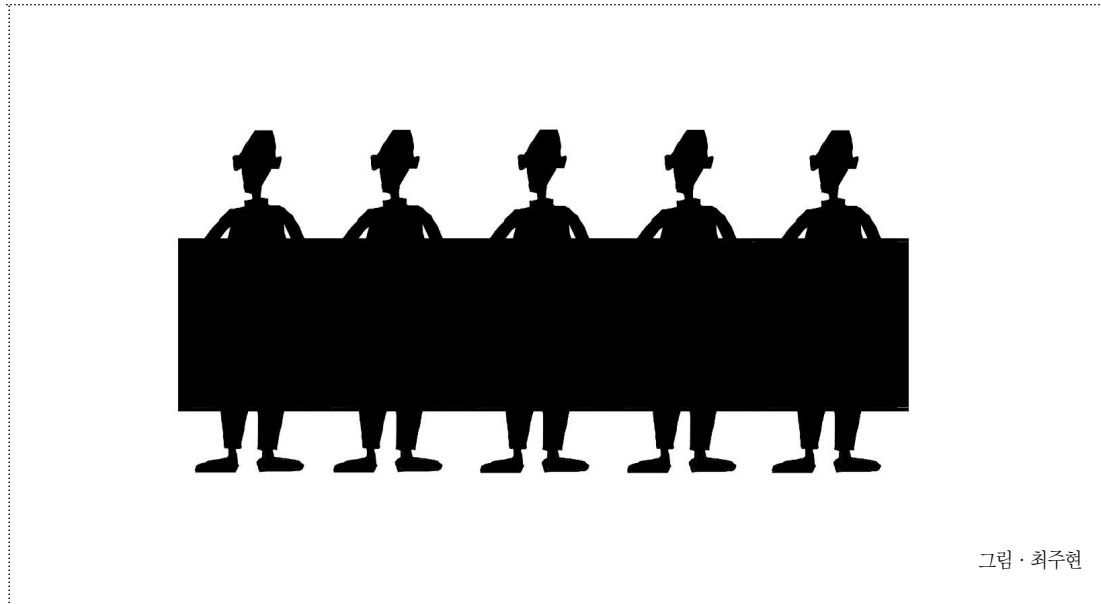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이 생각 저 생각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 있어

지으려나 인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금방 그 영령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모두가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내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내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여래의 집에 들어가 여래가 된 거죠. 부처가 다 됐다 이 소리죠.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모두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자2: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려면 아뢰야시(阿賴耶識)이다,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죠.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 다 팔식이다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스님: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작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팔식에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칠식은 없애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이라는 건 없애지고 식만 남아서 그런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성이 다 승주리째 틀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틀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애지는 겁니다. 틀이 아닌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질문자2: 다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관찰을 해보면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활나에 일어났다가 활나에 없어졌다 또 활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은, 그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樂)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스님: 만날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여기 걸어들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리었다 일어났다 가리었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도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가리었다.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뭐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리었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생멸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해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

##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야

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딴 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틀이 아닌 것 입니다. 틀이 아닌 깨달음에 그냥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활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은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부를 떼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하고 부를 겁니다. 그런 걸 대치할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질문자2: 예. 그렇다면, 한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틀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같이 이해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까?

▲스님: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제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수행하는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팔죽을 쑤는데 팔죽 방울이 수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걱이 아니라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했는데 무슨 까닭인가 했더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팔죽 솥이라면 팔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야 하는 소립니다.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라고 친 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댓습니다. 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는 일어나는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오듯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방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마음에 밝게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질문자2: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에 걸고 끄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위 본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 하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칼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어느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술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론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지라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탈 남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임부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건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족의학자 권재우 홍(경산 신철)

주론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양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천아명당 - 배산임수 - 시계절 물이 철철 흐르는 곳

### 시찰부지/연수원/복지관부지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현산 자락에 위치 안성 C·C근처 / 칠장사 진입도로 입구

도로 2차선 점선지 / 접근성이 매우 훌륭함

면적 3,000평~10,000평 (필요한 면적 만큼)

특기

- 天下明堂 地氣를 찾는분 환영
- 부지내 지하수가 매우 풍부함
- 청룡 · 백호 외호가 뛰어나며
- 특히, 백호가 역수(逆水)한 곳
- 중개인 사절 (실수요자만 직접 면담)

연락처 : (주)02-2269-4023 / (011)9713-9984

## 법문, 불경을 녹음해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수지속송하고 다른 이들에게 설하는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10여번이나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리하라고" 간곡히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보귀의하음고

세상에 널리알려지는 부처님의 은덕을 강낭콩로된 (원장스님, 선월) 협력업체 (주)서광아이엔티에서는 귀 사찰의 온스님및 주지스님의 불경(특경, 범문)을 녹음 및 테이프 제작해드립니다.

고가의 녹음비용이 드는 스튜디오녹음을 출장방문하여 녹음을 하기때문에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출타하시는 불편을 줄이시게 되고 또한 고성능의 녹음기로 녹음을 받아 디지털 음성 편집작업을 하기때문에 편리하게 녹음을 마칠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된 작업은 테이프 및 CD로 제작해드리게 되어 신도님들께 배포함으로써 각 사찰에 생활속에서의 불교를 쉽게 접하게 해드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귀사찰에 부처님의 은덕이 널리 퍼지길 기원하옵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친절함 상담으로 금강한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 주요업무: 사찰음메이지제작,성공모금 ARS, 각종녹음

(주)서광아이엔티

본사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3가 43-1 원광빌딩  
Tel : 02-711-2922 Fax : 02-711-2924  
24시간 상담전화 : 0505-336-7555  
문명계좌번호 : 국민은행 015-25-0055-534  
(주)서광아이엔티